

【 해외금융뉴스: 일본 】

일본 손보업계, 정신질환·위생 관련 서비스로 불황 타개

□ 일본 주요 손해보험회사인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정신·위생 분야에 신사업 기회가 많다고 보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의 정신질환 관련 노동자피해보상보험 신청 건수가 이미 900건을 상회(2008년 기준)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고액의 배상 소송도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의 정신·위생 관련 대책이 기업위기관리 분야에 핵심 이슈로 부상 중임.
-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최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원이 노동자피해보상보험 대상이 되거나 장기간 미복직으로 기업 손실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한 손실비용 보상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장기 휴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손실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MOSIMO'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음.

미츠이스미토모화재의 'MOSIMO' 서비스 개요

항목	주요 내용
정식 명칭	- MOSIMO(Mental health-cost Original Simulation Model의 약어)
오픈 일자	- 2009.6.15.
개발 배경	- 사원이 정신·위생과 관련해 기업손실전 조기발견, 장기화 및 재발 방지 - 단체장기장해소득보상보험, 법정외노동재해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상품 가입 유도
특징	- 사원의 장기 휴직시 휴직기간 전후의 생산성 저하, 휴업 중 급여보상, 대체사원 인건비, 교육비 및 업무부담에 의한 잔업비 증가 등의 다양한 기업손실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무료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healthy-hotline.com/mosimo/

자료: 미츠이스미토모해상 관련 보도자료(http://www.ms-ins.com/news/h21/news_0619_1.html) 요약·정리

□ 다른 손해보험회사들도 잠재 수요가 많은 정신·위생 분야를 현재의 보험시장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분야로 삼고 있음.

- 손해보험재팬은 기업의 해외 주재원 및 가족에게 무료로 정신·위생 관련 전화상담을 하고 있으며, 도쿄해상홀딩스의 자회사인 도쿄해상니치도메디컬서비스도 정신질환으로 휴직 중인 사원의 업무복귀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전문가들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보험시장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정신·위생 분야와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미츠이스미토모화재 홈페이지, FujiSankei Business | 7/1)